

圖書館과 社會開發

李 萬 甲
서울大學校圖書館長

1.

주어진 과제는 圖書館과 社會開發이다. 보통 社會開發은 經濟開發과 콘트라스트를 이루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그 두개의 개념을 포함한 것이 國家開發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國家開發에 또 하나의 要素로서 國土開發을 추가하는 學者도 있다. 과거에는 國土開發은 經濟에 포함해서 생각해도 좋았을런지 모르겠다. 經濟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 그것은 社會開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사실 國土開發을 따로 떼어서 별도의 중요한 要素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는 環境의 문제가 꼭 중요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國土開發을 별개의 要素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고사하고 經濟開發과 대차적으로 사용되는 社會開發은 人間生活의 非經濟的인 面의 開發을 뜻하는 것이며, 人間이 肉體의 精神의 活動을 건전하게 이루도록하여, 人間이 家庭이나 地域社會에서나 또 職場에서 잘 적응하여 幸福된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는 一連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經濟開發이 生産과 流通에 직접 관련되고 있는데 대해서 社會開發은 經濟開發에 도움이 되는 社會的側面을 개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經濟開發의 결과로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不條理를 시정하며, 또 自然的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災害로부터 人間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兩者의 구별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백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經濟行爲를 하는 것은 人間이며 人間은 근본적으로 心理的이고 社會的이고 또 文化的이기 때문이다. 近代의인 社會에 들어가기전에, 다시 말하면 人間이 身分의인 구속에서 해방되어 合理的인 經濟活動을 할 수 있기 전에 있어서의 經濟活動은 政治權力에 의해서 크게 左右되고, 따라서 經濟現象은 政治的角度에 重點을 두고 봐야 했을 것이다. 近代의인 社會에 들어가서 經濟現象은 合理的으로 經濟活動을 하는 호모·에코노미스라는 抽象的인 經濟人을

가상하고 순전히 經濟學的인 角度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크게 곤란한 일은 적어도 그 經濟를 左右한 資本家의 입장으로 볼때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政治權力을 가진 者도 실제에 있어서 經濟權을 쥐고 있는 資本家의 意思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政治는 오히려 經濟에 부수하는 현상이 되었다.

그런데 점차 大衆社會的인 時代에 들어가면서 종전의 경제적인 原則에 의해서만 經濟活動을 效果的으로 수행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 時代에 들어가면서 人間은 이미 빵에 굶주린 無識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우선 자기가 人間이라는 것을 認識하고 人間으로서 마땅한 權利를 행사해야 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抗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미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또 그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한사람이 넘치고 있는 社會도 아니다. 따라서 經濟活動을 바람직한 상태로 이루어려면 그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양을 책임을 지고 있는 그들의 妻와 子女 또 그들의 父母까지도 포함하여 그들이 원만한 生活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오늘날 선진국가에서는 經濟開發과 社會開發이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開發途上國家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開發途上에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經濟的餘裕가 없다. 모든 國民이 經濟活動에 같은 比重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그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해준다면 再生産을 擴大하기 위해서 投資하는 액수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經濟開發이 우선하고 社會開發은 뒷전에 처지게 마련이다.

韓國은 지금 經濟開發이 비약적으로 달성되어 中進國의 대열에 끼게 되고 그에 따라 근자에와서 社會開發의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여기서 社會開發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社會에서의 갈등이 심해지고 經濟開發자체가 저해되기가 쉽다. 그러면 圖書館과 社

會開發이라는 題目 밑에 우리가 論할 內容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社會開發을 말하는 것인가? 或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또는 常識의인 의미에서 「社會開發」이 아니라 「社會의 發展」을 가리키는 것일까? 編輯者의 의도는 前者의 엄격한 의미에서의 社會開發을 論하라는 것은 아닌듯하며, 그렇다고 해서 社會의 모든 發展即 政治, 經濟, 文化의 모든 分野에 걸친 發展을 論하라는 것도 아닌듯하다. 짐작컨대 여기에서는 社會의인 면에서의 社會의 發展과 圖書館과의 관계를 論해달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筆者는 제멋대로 그런 각도에서 論해볼까 한다.

2.

經濟的인 면이 아닌 分野해서 가장 강력하게 發展이 요구된 것은 教育이 아닌가 싶다. 李朝末에서 부터 우리나라의 先覺者들은 自主國家를 이룩하고 民族이 自立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手段은 教育이라고 생각하고 教育에 굉장한 努力을 기울여왔다. 그것은 참으로 옳은 생각이었다. 結局 모든 發展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肉體의으로 또 精神的으로 튼튼해지고 近代國家를 꾸려나갈 수 있는 知識과 識見 그리고 옳은 倫理的 자세를 취하도록 教育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日政時代에서도 계속해서 지켜져서 역시 教育에 크게 힘을 기울여 왔다.

이처럼 教育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貧困을 극복하고 中進國에 들어설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教育에 圖書가 필요한 것은 더 말할 것이없다. 教育이나 學習은 곧 圖書를 읽고 익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教育에 있어서 圖書는 不可缺의 요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圖書는 教育에만 必要한 것은 아니며 知識을 생산하는데도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韓國은 남의 나라에서 생산된 知識을 섭취하는데 바빴고, 자기의 입장, 자기의 生理에 맞는나 맞지않는나 하는 것은 짐작과 要領으로 처리하도록 해왔다. 外國에서 생산된 知識중에 自然에 관한 것은 그렇게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다. 왜냐 하면 自然科學은 보다더 普遍的으로 적용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社會現象은 自然現象과 좀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社會現象은 文化의 現象이며, 文化는 時間과 場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文化에서는 소는 결코 良質의 蛋白質을 가진 食用動物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聖스러운 動物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 文化속에서 國民의 營養을 위하여 소를 키우도록 권한다는 것은 년센스일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現象에 관

한 知識에 있어서는 文化와 歷史를 이해하고 그 社會가 놓여 있는 條件을 적절히 究明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 外國의 知識을 그대로 본받을 때에는 오히려 더 逆效果를 가져올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이제 韓國이 外國의 援助만 바라고 살던 時期를 지나 완전히 獨立한 國家로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運命을 개척하고 나아가서 世界의 平和와 발전에 이바지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立場에서 教育을 하는 동시에 우리의 主體의인 活動에 필요한 知識을 研究創造해야 한다. 그럴려면 더우기 우리는 최신의 知識을 담은 圖書 또는 情報資料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社會의 어떤 면에 있어서 教育과 研究를 강조해야 하고, 따라서 그에 필요한 새로운 情報를 생산하고 보급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형편으로서서는 貧困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다가, 外部로 부터의 軍事的 또는 政治的 威脅을 너무 강하게 받아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게 된것은 技術을 발전시켜 生産과 建設에 힘을 기울이며 軍事力을 증강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社會的으로 필요한 것은 經濟的 發展이었다. 그 외에 社會的으로 요구된 것이라면 國家的事業을 충실히 하도록 國民이 적극 협조하는 精神 자세가 강조되었을 뿐, 그것을 넘어서서 社會開發이 體系의으로 꾸준히 강조되고 組織的으로 추구된 일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가 하면 물론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1971년부터 전개되는 새마을事業은 經濟的인 면도 크지만 그보다는 역시 社會的인 면이 지배적인 事業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人口層을 대상으로 하며, 또 貧困의 惡循環이 전개되고 前近代的인 生活이 고수되고 있다고 흔히들 말해오던 農村地域의 生活全面的 改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政府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방대한 地方行政組織과 民間組織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歷史上 일찌기 볼 수 없었던 劃期的인 事業이다. 그리하여 이 事業의 成敗는 韓國에서의 農工併進을 달성하여 國家全體의 균형있는 近代化를 이루고 國家安保의 터전을 공고히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극히 중요한 事業인 것이다.

社會的인 면에서 또 하나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事業은 家族計劃이다. 이 事業은 人口의 過多가 한편에서 經濟發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편에서는 그것이 母子保健에 해롭다는 점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그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타당한 事業이다. 그러나 人口를 감소하기 위한 면에서의 家族計劃을 수행할

때 거기에서 결과되는 여러가지 社會的問題에 대한 고려는 별로 심각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령 核家族이 經濟發展에 도움이 되고 近代의 다이내믹한 社會에서 움직이는데에는 적절하겠지만 核家族內에서의 사람들의 외로움과 그에 따른 情緒的不安定, 또한 失職이나 疾患, 그밖에 어려운일이 닥쳤을 때 核家族은 擴大家族보다 그것을 克服하기가 곤란할 可能性이 클런지 모른다는點, 이러한 問題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以上은 우리나라에서 社會開發에 관련된 중요한 事業이지만 마땅히 강구되어야 할 問題인데도 전혀 고려되지 않거나 고려되고 있다해도 충분히 않은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公害같은 것은 오늘날 심각도가 여간 크지 않지만 本格的으로 그 對策이 강구되고 있지는 못한듯 하다. 또한 靑少年의 逸脫非爲, 老人들의 은퇴생활도 社會的인 면에서 여간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심각한 社會的問題는 階層間의 生活와 意識의 隔差의 問題가 아닌가 싶다. 오늘의 韓國社會에서 긴요한 것은 國民이 하나의 協同體로서 總和團結하는 것이며, 그것은 安保的인 側面이나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階層의 差等이 없는 社會는 존재할수는 없다. 所得에서, 敎育에서, 그리고 그밖의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는 항상 不平等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이 國民의 大部分에 의해서 적어도 國家의 발전을 위해 가장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不當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심한 差等이라면 社會는 극히 不安定해지게 마련인 것이다.

또하나 중요한 問題는 近代的인 價値體系의 형성이다. 오늘의 韓國社會에서는 前近代的인 價値가 무너지고, 주로 西歐社會에서 전파된 價値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前近代的인 價値가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모두가 나쁜것은 아니다. 또 西歐的인 것이 모두 우리에게 맞는 것도 아니려니와, 그 모두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一世紀동안에 前近代社會에서 近代社會로 그리고 脫工業社會에 들어가는 西歐社會의 새로운 價値觀念에 자극을 받고 變化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韓國社會에서 우리는 家族과 地域社會와 職場에서 어떤 倫理를 갖고 어떤 價値를 어떤 形態로 취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標準이 발생하기가 쉽다.

3.

以上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社會開發에 어떤 問題가 제시되고 있고 또 제시되어야 하는가를 간단히 살펴 보았다. 이러한 問題들에 대해서 圖書館

이 적절한 情報를 신속히 또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그들이 問題의 성질을 옳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對策을 강구하도록 자극해야 함은 두말 할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情報를 어떻게 마련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도 여간 중요한 問題가 아니다. 더 具體的으로 말한다면, 圖書는 萬人の 것이며, 누구도 圖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야 함은 하나의 原則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社會的參與가 같은 組織에 의해서 같은 形式으로 같은 比重을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圖書館도 同一할 수가 없다.

一般的으로 圖書館에는 立法機關을 위한 圖書館, 公共社會를 위한 圖書館, 大學등의 研究기관을 위한 研究圖書館, 學校圖書館, 그리고 職場의 機能的活動을 위한 圖書館으로 大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韓國에는 위에 들은 圖書館이 모두 있다. 그러나 거기에 소장되고 있는 圖書 또는 非圖書形態의 情報資料는 남아서 지금의 社會에는 使用가치가 적은 것이 많고, 새로운 것은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한 圖書館이 대부분인 것이다.

그나마 社會開發에 관한 內容의 情報는 아주 드물것이다. 그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韓國에서는 技術과 經濟가 긴요하면 다른 部門에 관심을 가질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圖書와 情報資料가 적다고 해도 相對的으로 權力을 행사하거나 財政的能力을 갖고 있는 기관의 圖書館은 그래도 그렇지 못한 기관의 圖書館 보다는 다소 內容이 풍부하다고 하겠지만 先進國에 비하면 형편없을 정도로 빈약하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問題를 해결하려는 主體性있는 國家로서는 극히 바람직 하지 못한 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國家가 자기의 運命을 개척할 決意가 있다면 자기의 運命에 관련되는 긴요한 情報, 우리의 경우에는 社會開發에 관하여 긴요한 情報를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經濟的인 理由도 많은 圖書館이 갖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어느 圖書館엔가는 있어야 한다.

여유가 있으면 물론 여러 圖書館이 긴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편으로서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어디엔가 한곳에는 갖추고 있게 해서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圖書館 相互間의 情報 支援과 協調가 여간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經濟的餘力이 없기 때문에 社會開發에 필요한 情報資料를 마련하는데 힘을 기우릴 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韓國은 經濟發展의 속

도가 극히 빠르므로 곧 社會開發의 問題가 심각해질 것이며, 그것이 바람직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社會가 不健全하게 될것은 말할것도 없고 經濟發展도 종전과 같이 잘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은 이제부터 社會開發에 관한 情報資料를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또하나 말할것은 經濟發展이 이루어짐에 따라 國民 전체가 近代社會의 組織의 틀속에서 活動하게

되므로 生活에 필요한 情報은 전과 같이 敎授나 學生 또는 특수한 機能을 수행하는 機關에서만 獨占할것이 아니라 國民모두가 신속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國民의 힘을 結集시켜서 國家社會의 發展을 위해서 힘을 발휘하게 하기가 어렵고 또 個人의 성공적인 적응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研究圖書館뿐만 아니라 公共圖書館을 좀더 충실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圖書館人」

매년 이때가 되면 나의 職業을 決定지어 준 한가지 일이 생각난다.

까까머리의 중학교 時節, 現代의인 施設을 갖춘 學校圖書館의 開館을 앞두고 다른 친구들보다 많은 책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學生圖書委員會가 되어 새로 지어진 도서관의 마루를 쓸고 닦고 기뻐칠하고 새로 사온 많은 책들을 司書敎師 先生任을 도와 整理를 하다가 通禁時間에 쫓겨 歸家하던 일, 새로 맞추어 입은 까만 冬服이 북포켓을 부치다 풀로 하얗게 얼룩을 만들어 놓고 부산을 떨던 일 등.....

막연히 도서위원이 되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始作한 圖書館生活이 大學에서도 圖書館學을 공부하게 하였고 이제는 나에게 圖書館人이라는 職業을 가져다 주었다.

圖書館에서 勤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일이겠지만 圖書館人이라는 職業은 남과 같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화려한 職業도 아니요, 그렇다고 權力을 行事할 수 있는 職業도 아니다.

오직 學問과 文化의 所産인 많은 情報資料와 文化 遺産들을 蒐集하고 整理하여 이들을 必要로 하는 利用者들에게 提供하여 利用者들의 요구를 만족하게 해주는, 남을 위해 일하는 신성한 職業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요즘의 豫備 圖書館人인 後輩學生들을

만나면 圖書館學科에 在學하면서도 圖書館職을 고리타분하고 發展性없이 보인다하여 外面을 한 채 보다 보수가 좋고 便安한 生活을 위해 圖書館 業務에 必要한 研究보다는 他分野, 다시 말해서 취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傾向이 많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경우가 많다.

事實 圖書館人도 성인군자가 아닌 平凡한 사람일진데 왜 보다 보수가 좋고 安樂한 生活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마는 앞으로의 圖書館은 社會의 다른 모든 分野보다도 發展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묵묵히 來日을 보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圖書館學이 分類나하고 目錄카야드나 만들고 하는 것이 主가 아니고 洪水처럼 쏟아져 나오는 모든 情報를 蒐集分析, 組織, 蓄積, 檢索, 分配하는 일들이 모든 學問의 發展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研究하는 일이며 社會에 기여하는 效果도 다른 어느 職種보다도 앞서가는 職種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십 수년간 圖書館에서 生活하면서 작은 勤機로 因해 圖書館人이 된것을 후회해 본 일이 없다. 오히려 後輩들을 만나면 격려해주고 同職者가 되자고 이끌어 주는 사람의 하나가 되었나 보다.

도서관 書庫에서 풍겨 나오는 獨特한 곰팡이 냄새에 매력을 느껴 오늘날도 圖書館人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來日의 밝은 圖書館을 바라보면서, 까까머리중학교 時節을 새삼스럽게 돌이켜 보게 된다. (畵)

